

안 멩쳐도 뜬다... 예능 휩쓰는 스포테이너

(스포츠+엔터테이너)

축구 손흥민 ▶



체조 여흥철 ▶



배구 김연경 ▶



농구 현주엽 ▶



최근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방송 출연이 활발해지면서 일명 '스포테이너' (스포츠+엔터테이너) 2세대가 각종 프로그램과 TV 광고를 휩쓸고 있다.

씨름선수 출신 강호동·이만기가 스포테이너 1세대로서 방송가를 주름잡아 왔다면, 축구계 테리우스 안정환과 농구계 전설 서장훈은 2세대로서 2010년대부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농구의 허재, 마라톤의 이봉주, 체조의 여흥철, 배구의 김요한 등 더 다양한 종목의 '레전드'들이 방송에 진출해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내세워 사랑받는다. 자연스럽게 종목별 스포테이너의 세대 확장도 이뤄지는 중이다.

농구 분야에서는 서장훈 뒤를 이어 현주엽과 허재가 맹활약한다.

SBS TV '정글의 법칙'이나 '버저비

강호동·이만기 이어 안정환·손흥민·김연경·여흥철 등 시청자들에 친숙한 스포츠 스타들 예능 프로그램 맹활약 운동할 땐 볼 수 없었던 허당기와 인간적인 면모 발산

터' 등 주로 '몸 쓰는 예능'에 출연하던 현주엽은 최근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창원 LG 세이커스 감독으로서의 일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허재는 JTBC '몽쳐야 찬다' 한 프로그램 맴돌고도 확고한 '허당'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이후 '정글의 법칙'과 tvN '일로 만난 사이'에도 얼굴을 비추며 상승가다.

축구에서는 안정환의 독주 체제에 손흥민이 가세했다.

손흥민은 완전한 예능은 아니지만 tvN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을 통해 영국에서의 소소한 일상과 훈련과정, 국내 스타들과의 친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며 친근함을 얻었다. 덕분에 전자제품, 가공식품 등 다양한 분야 CF 광고를 꿰차기도 했다.

육상 분야에서는 한국 육상 역대 최고의 스프린터 장재근이 홈쇼핑 방송 등에서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이봉주가 대표 주자다. 그는 tvN '동지탈출'에 이어 최근 '몽쳐야 찬다', MBC TV '공부가 머니' 등에 출연하며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린다.

체조에서는 손연재 바통을 이은 선배 여흥철이 '몽쳐야 찬다'에서 다른 허당 멤버들과 달리 특집 능력을 보여주며 활약 중이다.

배구에서는 '여제' 김연경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은 물론 MBC TV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토크형 일상과 입담을 자랑하고, 김요한도 은퇴 후 '몽쳐야 찬다', '칼떡콤비', '안녕하세요' 등에 출연해 막강한 비주얼로 화제에 올랐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19일 "스포츠 스타들이 기존에도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인데 더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나면 기존 예능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던 의외성과 새로운 모습, 운동할 땐 볼 수 없던 허당기와 인간적인 면모가 발산하면서 대중을 사로잡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염정아·윤세아·박소담 출연 '삼시세끼 산촌편' 5.2% 중영

허지용 '나혼자 산다' 9.2%

'삼시세끼' 시리즈 사상 최초 여성 멤버로만 구성된 '삼시세끼 산촌편'이 5.2%로 중영했다.

지난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tvN에서 방송한 '삼시세끼 산촌편' 최종회 시청률은 이같이 나타났다.

방송 마지막 회에선 염정아, 윤세아, 박소담이 산촌 하우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먹을 저녁 겸 야식으로 닭갈비구이와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었다.

여성 배우 3명으로만 꾸며진 '삼시세끼 산촌편'은 평소 예능에 잘 나오지 않던 여배우들의 새로운 면모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특히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 염정아는 가마솥으로 '손 크게' 요리를 만들고,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1단 줄넘기도 소화 못 하는 '허당' 같은 매력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한 MBC TV '나혼자 산다'는 7.7%-9.2%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선 악성립프중 함양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방송인 겸 작가 허지



용이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보였다.

함양치료를 끝내고 완치를 향해 가는 그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

를 보내기도 했다. 드라마 중에선 SBS TV '배가본드'가 7.0%-8.6%-10.6%, JTBC '나의 나라'가 4.2%(유료 가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노희경의 '라이브' 미국서 리메이크...워싱턴 배경

노희경 작가의 tvN 드라마 '라이브' (2018)가 미국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미국 할리우드 뉴스 매체 데드라인은 최근 "크리스 콜린스와 스티븐 K. 브라운이 폭스사에서 만드는 경찰 소재 드라마 '라이브'가 한국식 포맷으로 제작된다"고 밝혔다.

노 작가와 원작을 기획한 스튜디오드래곤도 공동 제작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데드라인은 미국 리메이크작에 대해 워싱턴DC가 배경이며,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에서 자란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경찰인 다셀 메어리 눈은 통해 본 경찰 조직과 사회를 조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판 '라이브'는 대본 집필 후 파일럿 방송을 추진 중이며, 이후 성과에 따라 편성을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노 작가 원작이자 배종옥, 정유미, 이광수, 배성우가 주연한 원작 '라이브'는 지구대 경찰들의 이야기를 휴머니즘 관점에서 섬세하게 그려내 호평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6:00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00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08:00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9:00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0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재)	10 2019 광주광역시의회 하반기 시청질문
11:00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12:00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정재영의 이슈IN(재)
13:00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00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카데미			00 2019 광주광역시의회 하반기 시청질문
15:00	10 전라도 매력창(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6:00	00 시사간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17:00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썸바이벌 1+1(재)	00 5 MBC 뉴스 25 황금정원(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18:00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19:00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시사터치! 따따따(재)
20:00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21:00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22:00	00 가요무대	00 조선로코-녹두전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3부
23:00	00 더 라이브 40 제비리듬 토크쇼 J(재)	10 다큐멘터리 3일(재)	20 양코르 MBC 스페셜	
24:00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영상앨범 산(재)	20 스포츠 다이어리 35 난만클럽	00 나이트 라인 30 양코르 고향문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당 유치원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출동! 슈퍼윙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마사와 곰	15:55	출동! 슈퍼윙스(재)		〈푸드 트립 스페인 -행복한 미식 자치주 바스크〉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여행책에 없는 강원도 1부 계곡 따라 걷다보면〉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당 유치원(재)	17:00	EBS 다큐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00	EBS 정오뉴스	17:45	띠띠뽀 띠띠뽀(재)	23:35	별일 없이 산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1일 (음 9월 23일 辛卯)

<p>子</p> <p>36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지키 말고 핵심 사항에 매진 하자. 48년생 상호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60년생 잡다한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72년생 주판과 소신은 가지되 대세에 편승하라. 84년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96년생 기묘한 성공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79</p>	<p>午</p> <p>30년생 작아도 생가지 않도록 방법에 신경 써야만 한다. 42년생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다. 54년생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성적이다. 66년생 판공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력이다. 78년생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보이나 인연이 박하다. 90년생 순조로워져 경사가 곱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7, 85</p>
<p>丑</p> <p>37년생 살피고 물어 보는 것이 낫다. 49년생 몇 번 되풀이 되는 듯 하다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61년생 앞으로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73년생 쉬어 있으면 핵심을 살필 수 없을 것이다. 97년생 기발한 요령 보다는 꾸준한 정진이 더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9, 84</p>	<p>未</p> <p>31년생 연결 고리가 부실하니 관계의 설정과 활용에 유의하라. 43년생 남치우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55년생 감지되는 징후가 이상하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79년생 나관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91년생 기화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하게 잡자. 행운의 숫자 : 06, 99</p>
<p>寅</p> <p>38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50년생 취약점을 보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62년생 한 번 팔지 말고 현재에 주목하라. 74년생 여자에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좋다. 98년생 육식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50, 03</p>	<p>申</p> <p>32년생 공연히 헛수고만 할 공산이 크다. 44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56년생 쉽게 관철 될 수 있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68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80년생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92년생 균열이 가기 전에 예비 점검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43, 61</p>
<p>卯</p> <p>39년생 결과가 의외처럼 좋은 하루다. 51년생 오매불망하며 향수고대 해오던 것을 마침내 이루리라. 63년생 아랑곳 하지 않고 홀로 높은 산을 오르는 이가 보인다. 75년생 참된 가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진력하는 것이 옳다. 87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든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99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향에 따른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64, 68</p>	<p>酉</p> <p>33년생 희망의 보따리를 짊어지 이의 제의가 있겠다. 45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취하게 된다. 57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게 되리라. 69년생 예상이 빚나가 바뀔 수도 있다. 81년생 구조적인 모순 관계에 놓여 있으나, 93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0, 44</p>
<p>辰</p> <p>40년생 기회는 있지만 답답지 않을 것이다. 52년생 기다려라. 64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느니라. 76년생 타산지적으로 삼을 만하다. 88년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비가 스르르 찾아 올 것이니라. 00년생 변동의 폭이 매우 넓다. 행운의 숫자 : 36, 74</p>	<p>戌</p> <p>34년생 전혀 납득하기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니라. 46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펴볼 일이다. 58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여 혼란스럽겠다. 82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을 알아. 94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7, 42</p>
<p>巳</p> <p>41년생 산 넘어 산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53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65년생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 주목하자. 77년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가능성을 높인다. 89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 성과를 올린다. 01년생 취약점이 보이나 서둘러 보완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9, 86</p>	<p>亥</p> <p>35년생 길사와 연결 될 가능성이 확인해진다. 47년생 경험자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59년생 관원시각이면 문제점이 생긴다. 71년생 여기저기서 불분명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대목이다. 83년생 잘못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원점으로 복귀하여 재출발하는 것이 좋다. 95년생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게 한다. 행운의 숫자 : 72, 45</p>